

2011년도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사업 통합 심사평

본 심사평은 분야별 각 책임심의위원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통합 심사평

- 일시 : 2011. 2. 22(화) 10:00~12: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전통분야 : 강호중, 이창신, 채치성, 전지영, 이정만

2011년도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은 총 13개 시·도의 신청사업 중 11개 시·도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화부(국고)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2010년 예술위원회(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예술위원회의 기본 심의방침에 의거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는데, 무엇보다 평가결과를 엄정하게 환류 반영하기 위해 2010년도 평가 결과를 70% 반영하였고, 2011년 사업계획 평가 점수를 30% 반영하였다. 그리고, 전년도 지원 이력이 없는 신규 사업은 2011년 심의결과를 100%반영하였다.

이번 심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자세히 보았으며, 프로그램의 수월성, 주관단체의 행사 추진능력, 사업추진 장소의 적합성, 지자체의 지원의지 등을 주요 심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 사업의 취지에 따라 전통예술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와 국악의 대중화 기여 측면도 검토하였다.

심의결과, 전년도 사업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1개 단체를 포함하여 전체 11개 시·도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A등급(120백만원) 1개 시·도, B등급(100백만원) 4개 시·도, C등급(80백만원) 6개 시·도이다. 동 사업은 모든 시·도가 최소 50백만원 이상을 매칭 지원하는 관심 사업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모범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전통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